

기획예산처 '서남권 발전계획' 후속 대책

무안공항·목포~보성 철도 조기완공

SOC 지원 확대 신규사업 가급적 억제 관광클러스터 등 민자유치 대책은 없어

기획예산처의 '서남권 발전 구상 관련 주요 사업 검토' 자료는 예산 증액을 통해 기존 SOC 사업의 조기 완공과 신규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서남권 발전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서남권 발전 구상의 실질적 '콘텐츠'를 구성하는 일부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며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한 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남권 종합개발계획이 SOC확충과 개발사업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분별 예산지원이 반드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SOC 사업은 지원 확대=기획예산처는 국비의 추가 반영을 통해 관련 사업지역 내 굵직굵직한 SOC사업의 조기 완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지원금액이 360억원으로 잡혀있는 무안국제공항 건설 사업(총 사업비 3천170억원)은 추가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목포~보성간 철도 건설(총 사업비 1조 2천979억원)과 신안 압해~운남 국도 77호선(올해까지 총 사업비 261억원), 신안 등 도서지역 종합개발(총 사업비 650억원), 대불산단 자유무역지역 사업(총 사업비 1천508억원) 등에 대해서도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신규사업인 신안 압해와 암태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 건설(총 사업비 6천428억원)은 설계비를 우선 반영,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신규 사업지원 미흡=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획예산처에 서남권 발전 사업과 관련한 5대 주요 사업을 제

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관련 ▲세라믹산업 지원센터건립 ▲무안 남악 선시티(Sun-City) 시범단지 조성 등 2개의 사업은 국고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안 농산물 유통물류단지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조선산업혁신클러스터 단지 지정 ▲태양광·수소전지 부품소재 공장 유치는 중장기 검토대상 과제 및 국고지원 곤란사업으로 분류했다.

국고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총 사업비 300억원, 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자 50억원)으로 세라믹산업 시제품 생산지원과 R&D(연구·개발) 기반구축을 위

■서남권 개발관련 5대 프로젝트 검토결과 (단위: 억원)

사업	총사업비	비고
세라믹산업 종합 지원센터	300 (국고 150)	가능
남악 선 시티 시범단지 개발	200 (국고 150)	가능
무안 농산물 유통시범 단지	1,500 (국고 1,000)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조선산업 혁신 클러스터 단지 지정	260 (국고 220)	국고지원 곤란
태양광·수소전지 부품소재 생산공장유치	500 (국고 200)	-

해 내년 예산으로 200억원을 반영했다. 남악신도시 Sun City 시범단지 개발(총 사업비 200억원, 국비 150억원, 민자 50억원)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예산으로 300억원을 반영했다.

반면 무안공항 배후에 조성하는 농산물 유통 물류시범단지 조성 사업(총 사업비 1천500억원, 국고 1천억원)은 광양 수출물류센터의 가동률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 2008년 이후 예산 반영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 단지 조성 사업(총 사업비 260억원, 국비 220억원, 민자 40억원)은 이미 전국에 균형발전 특별사업으로 7개 시범 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추가 산단클러스터 지정은 2009년 이후, 성과 평가 등을 토대로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수소전지 부품소재 생산공장 유치 사업(총 사업비 500억원, 정부 200억원, 민자 300억원)은 상업적 동기에 따라 민간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성격이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여기에서 대규모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국내의 기업투자유치로 충당해야 할 복합관광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투자금 마련계획도 소홀해 사업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盧杜統營 黨長 4주년 맞은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 4주년을 맞은 19일 대통령 고향마을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회관에는 4주년을 축하하는 화환들과 주빈 일동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결국 헤드헌터까지 동원하나

전남도 정부부지사 적격자 없어 재공모

고 지원자를 다시 공모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공모에서 적격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가 문제다.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비롯한 서남해안관광레저 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 등 서남권

종합개발계획 준비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어 사업을 이끌어갈 인사를 빨리 물색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후임 정부부지사는 중앙 부처와 경제계에 발이 넓고 해외기업 투자유치 능

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공모에서도 적격자를 찾지 못하면 최종 수단으로 유능한 인재를 소개해 주는 '헤드헌터'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관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공모를 통해 유능한 인사를 다시 찾아보되 여의치 않으면 (헤드헌터 등) 또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회고 2006

4 여수엑스포 유치 본격 추진

전남 동부권 도약 기회 정부 외교력 총가동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은 지난달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여수와 모로코의 탕헤르 그리고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등 3개 도시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02년 12월 3일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국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4차 결선투표에서 중국 상하이에 34대 54로 패배한 지 4년여 만에 또다시 국운을 건 박람회 유치전이 시작된 셈이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지난 1997년 5월 31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계박람회 전남 유치 추진방침을 발표한 이후 '전남 동부권의 개발'을 의미하고 또 담보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탈락의 쓴 잔을 마시자마자 곧바로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전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도 세계박람회가 전남 동부권의 발전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 때문이다.

생산유발효과 10조7천억원

전남도 분석에 따르면 여수 신항지구 60만평의 부지에서 2012년 5월 12일부터 3개월간 박람회가 열릴 경우 부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 등 직·간접 사업비만도 1조 3천804억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관광객 1천500만 명 유치를 포함, 10조7천900억 원대의 생산유발효과와 15만6천7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람회만 유치된다면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은 그야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2 세계박람회는 또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 들었다가 상하이에 참패했던 2002년에 비해

유치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17일 여수시청에서 열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상황 설명회'에 참석했던 빈센트 곤잘레스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은 "한국이 진지하게 접근한다면 유치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유치지원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여수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도로·공항 등 SOC 확충 시급

그러나 모로코, 폴란드와 겨뤄야 하는 유치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 유치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세계박람회를 치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최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하는 만큼 내년 3월로 예정된 BIE실사와 내년 12월께 치러지는 98개 BIE회원국 투표 전까지 도로와 공항, 호텔, 컨벤션센터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람회 유치가 국가차원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외교적인 유치노력과 홍보도 절실하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모로코의 탕헤르가 아프리카권과 이슬람권, 그리고 일부 유럽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은 "모로코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슬람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2012 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로세르 탈레스 BIE(세계박람회 사무국) 사무총장이 지난 10월 여수 현지를 방문, 박준영 전남지사로 부터 여수 주변 SOC 건설 현황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2007학년도 전남대학교 정시모집

세계 정상급 동반 전남대까지 도전은 계속됩니다

2007년 12월 20일

www.chonnam.ac.kr

학과	인원	시험과목	시험일자
법학부	10명	국문, 영문	12월 23일
경영학부	10명	국문, 영문	12월 23일
경제학부	10명	국문, 영문	12월 23일
교육학부	10명	국문, 영문	12월 23일
사회학부	10명	국문, 영문	12월 23일
자연과학부	10명	국문, 영문	12월 23일
인문과학부	10명	국문, 영문	12월 23일
총계	100명		